

<< 아뜰리에 운동 >>

1. 왜? 아뜰리에 운동인가

예술가들은 그들의 예술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예민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규정 지워진 사회 시스템이 주는 삶의 규격화와 몰개성, 무기력으로부터 환기되어져서 이를 부정하려는 의식을 키우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는 새로운 모순된 담론들이 배태되어지며 적절한 긴장감이 흐르게 된다. 이 긴장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에너지로 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환기는 비 반복적인 순환을 통해서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게된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의 활동은 곧 시민의 삶의 건강성과 인간 내면의 저항성을 재발견해나가는 과정이며 그것들을 작동시키는 힘이 된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활동을 담보하는 공간으로서 제시하는 아뜰리에에는 과거 전통적인 작업실과는 분명 다르다. 전통적 의미의 아뜰리에 에서는 작가가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했다.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화랑에서, 작품의 판매는 화랑, 아트페어 혹은 개인적 판매, 하는 식이다.

그러나 현재는 작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부단히 시도되어지고 있다.

한 예를 들어 파리에 소재한 <빨레 드 도쿄>는 뮤지엄의 기본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미술관의 구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동 디렉터로 있는 제롬 상스(Jerome Sans)와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빨레 드 도쿄>라는 새로운 유형의 미술관을 세우기 위하여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거쳤다. 그 설문문의 핵심내용은 “21세기에 적합한 미술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미술관의 내부는 권위적인 인테리어를 싹 뜯어버리고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에 마치 내부공사중으로 보이거나 아예 창고형 작업장으로 인식되게끔 하였다. 실제로 전시를 위해 작가들은 필요하다면 벽을 뚫어 구멍을 내거나 (얼마 전에 있었던 하드코어전의 경우 한쪽벽면이 커다랗게 뚫려 아예 통로 역할을 했다) 직접 벽면을 캔버스 삼아 장시간에 걸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내부 시설물 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음식 맛을 위해서 주방장을 엄선했다는 후문도 있다.)과 두 개의 샵을 운영하고 있다. 이모든 시스템은 전시장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연구와 작업장의 역할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배다.

사실 이들의 컨셉이 새삼스러울 건 없다. 그러나 백번 생각하고 있으면 뭣하겠는가. 실천이 중요한 것을...

위의 경우는 미술관의 공간운영의 예이긴 하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전망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술가들의 편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지구는 세계화라는 단일체제 아래로 강제 통폐합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IMF, WTO, NAFTA, APEC는 초국적 자본을 위해 각국 정부의 자국보호 정책과 사회적 안전장치들을 깨부수는 강력한 무기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를 단 몇 사람의 금융자본가가 주무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본의 발 아래로 줄을 서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문화는 늘 그래왔듯이 주도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약소국들의 문화를 깨뜨려 통합하는데 팔 걷어붙이고 나서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되든 안되든 싸우든 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요즘 흔히 말하는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자본에 줄을 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가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예술공간의 확보는 현시기 예술운동의 맥락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본다.

2. 어떤 정신적 맥락에서 출발하는가

서구의 20세기 아방가르드운동은 오늘날의 예술가들에게 정신적 맥락을 제공한다.

"예술은 곧 사회의 표현이며, 가장 진전된 사회의 경향을 드러내준다. 그러므로 예술이 시동자로서 그의 고유한 임무를 가치 있게 성취하고 있는지, 또한 예술가가 진정으로 '전위'의 예술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인류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것을 규정하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G.D. Laverdant, 『예술의 사명과 예술가의 역할』, 1845)

191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아방가르드 예술은 기존의 예술을 부정하고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예술행위로 나타났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예술과 삶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도 반대하였으며, 예술이 우리의 삶과 너무 떨어진 것에도 비판의 입장에 섰다. 따라서 아방가르드는 기존의 습관적인 예술을 보호하는 사회에도 저항하였으며 세계대전도 반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약 백년의 역사를 거쳐 진행된 서구의 아방가르드 정신이 8,90년대 한국의 민중미술운동의 주장과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보면 조선후기 실학운동은 민중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민초의 삶을 반영하는 예술활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판소리, 탈춤, 민속화와 풍속화, 진경산수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기존 봉건문화에 대하여 저항적 입장에 섰음은 물론이다. 또한 일제하의 민족해방을 위한 예술가들의 투쟁이나 70년대 유신독재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시대정신, 80년대 소집단운동과 민중미술운동 등은 모두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예술사적으로 아방가르드 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기 아뜰리에 운동은 예술가들의 사회참여와 발언의 공간, 자본에 대한 저항의 공간, 시민사회와 예술이 만나는 접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아뜰리에 운동의 유형에 관한 생각

- 아뜰리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세계예술가들이 자신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공동의 사안에 대하여 수평적 연대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점거 작업실, 국제 예술가촌, 공동작업실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과 연대하여 문화적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WTO에 대한 공동대응, 환경문제,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쟁취 등을 함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점거 아뜰리에 혹은 공공시설물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점거는 예술운동의 한 유형이다. (점거 - 占據 - Squart - Occupation)

최근 충북 민미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거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의 예술가들이 처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아뜰리에의 중요성과 절박성, 그리고 점거예술의 필연성에 관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가들의 예술공간 구하기의 차원을 넘어선 아방가르드 적인 미학이 내재되어 있는 실천적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그들은 점거의 필연성에 관한 글에서

“즉, 예술가는 예술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예술창조자이고 또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오늘날 예술가들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바로 여기 최후의 수단인 점거가 있다.

이 실천적 저항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체하고 문화예술의 향수권(享受權)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려는 간곡한 예술적 노력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에서

- 점거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들의 생존문제 사회화
- 예술 창작 및 소비 공간의 확보
- 세계적인 대안문화(alternative culture) 지향의식
- 반자본, 반권력, 탈 식민, 반세계화의 이념 전파

등으로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 목표를

- 도시내의 작업장 절대부족 해소(절실성)
- 공동창작과 집단창작의 결과를 시민(people)에게 환원함
-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
- 예술가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 입안(立案) 유도

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잠깐 살펴보면 우선 점거는 사회규범 상 일탈행동에 가깝다. 그러나 만약 정부와 지자체가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부드럽게 하여 예술가들의 문제의식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점거라는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놀리는 공공시설물을 가치 있게 운영(장기든 단기적이든 간에)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효과가 있는 셈이고, 이를 전범으로 하여 그 동안 각 지방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시민의 문화공간 확보를 큰 힘들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공간의 점거는 예술가만을 위한 공간문제로만 한정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점거 아뜰리에의 사례를 볼 때 예술가와 시민사회의 합의 속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공간은 실제 시민들이 애용하는 문화공간들이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가들의 갑작한? 이벤트(점거)로 공공시설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예술적 공간으로 전환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예술가들은 '홍콩한 시민의 예술향수권 신장의 공간'을 창조하기를 원하지 '예술가들과 정부간의 투쟁의 공간'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 양자택일의 권한은 순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다. 다만 예술가들은 점거라는 일탈행위와 함께 준비하는 말랑말랑한 예술프로그램으로 설득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ersonal Mobile Atelier(이하 PMA)

때로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작업실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실은 정해진 공간 내에서 작품을 제작하거나 혹은 발표하는 형식(오픈 스튜디오처럼)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갖고 다닐 수는 없다. 배관공의 몽키 스페너 하는 식으로 몸에 지니고 다닐 만큼 수량과 크기가 만만하면 몰라도 대부분 작업실의 경우 그냥 그기에 있다. 물론 기존 작업실에 만족하는 예술가라면 그뿐이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치뤄가며 작업실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아예 작업실이 없거나 혹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작업실이 고정되어 있어 불만인 경우, 그것도 아니라면 테크놀로지와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업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경우, 작업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PMA는 나노 미술관(한스페터 펠트만Hans Peter Feldman과 한스-울리히 오브리스트 Hans-Ulrich Obrist가 공동으로 설립한 휴대용 미술관1996년)에서 착안한 이동작업실이다.

PMA는 말 그대로 이동 가능한 작업실이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생각하고 창작할 수 있는 이동형 아틀리에다.

작가는 작업실의 안과 밖을 이용하여 전시회를 가질 수 있으며, 작가의 취향에 따라 멀티미디어 작업을 하거나 영상을 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의 작가들,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휴식을 위한 찻잔과 침낭 등을 구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PMA는 거리와 공원, 도심과 농촌, 등 바깥 장소뿐만 아니라 카페, 전시장, 공공건물 등의 실내장소에도 머물고 전시될 수 있으며 창작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가 스스로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트럭이나 배 수송기 같은 기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PMA는 적은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으며 운영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장점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의 영향을 그나마 적게 받을 수 있는 아틀리에 유형이다.

PMA는 작가의 창작개성을 충분히 담지하여 소화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활동적이며 국제적이다.

- 노트북 달랑 하나

작년 10월에 있었던 제 8회 국제 예술퍼포먼스 페스티벌(8e Congres International D'art Performances)에 참가했던 어떤 예술가의 경우 통신 가능한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와서 퍼포먼스가 벌어졌던 4일 동안 내내 작업하였다. 그의 작업은 인터넷상의 잡다한 소음을 캡처 하여 자신의 음악을 작곡하고 있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황당할 수 도 있겠지만 가능한 작업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게릴라 아뜰리에

이것은 특정공간으로 불시에 작가들이 작업도구를 옮겨와서 마치 작업실처럼 사용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삼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가깝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한 작업실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끝

*이 제안 글은 여러 자료에서 도움을 받은 글임을 밝힙니다.

- 풍치 2003년 8월 30일 작성